

列國志 <86>

고우영

비디오 촬영
주문배수
● 결혼
● 생일
● 문, 회갑연
● 각종행사

노란공은 숨을 거둔다.
이브를 만들었다는 녹말이 좌우로 일관해나 바산났으니 하나의 녹은 무늬가 어떻게 지어졌을까?

Morning Calm Sales ☎ 735-1125 박

한국의 일본인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교포 일간지입니다.

몰락치는 이탈리아 관광업

작년 수입 64억弗...올들어 25%나 줄어

이탈리아의 여름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파사르우며 각도시들은 풍성한 유적과 미술품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이 주요의 화소독원의 하나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1천8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자그마치 64억달러나 벌어들였던 이탈리아는 금년들어 외국인 관광객수가 지난해보다 25%가 줄어들어 올상을 짓고 있다. 관광업계는 이같은 외국인 관광객수의 격감은 세계적인 불황과 고물가, 그리고 비한 이탈리아의 리화환을 증배된이라고 말했는데 이탈리아 국영여행사(ENIT)당국은 금년 관광수익은 개막 첫 주 동안 이탈리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지난해에 비해 25%나 줄었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광객들은 이탈리아 관광을 거리는 이유로 일단 및 항공기여행을 망그러드는 것은 파업, 형편없는 서비스, 귀신병치는 소매치기들의 군중, 그리고 빈번히 일어났는 외국인 납치 및 폭력 사건들을 들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납치 및 폭행사건, 전도된 소매치기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 한 젊은 서독여성도 이

소매치기·外國人 납치·폭행도 영향

세계적不況...伊리라貨換率오른탓

올은 물가·호텔 食堂의 형편없는 서비스原因

는 25%, 일본인관광객수는 30%가 줄었으며 미국인관광객수도 줄어들고 있다. 로마의 한 관광업자는 요즘 이탈리아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 높은 물가, 호텔과 레스토랑의 형편없는 서비스, 택시운전사와 상점점원들의 불친절 등에 대한 불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탈리아는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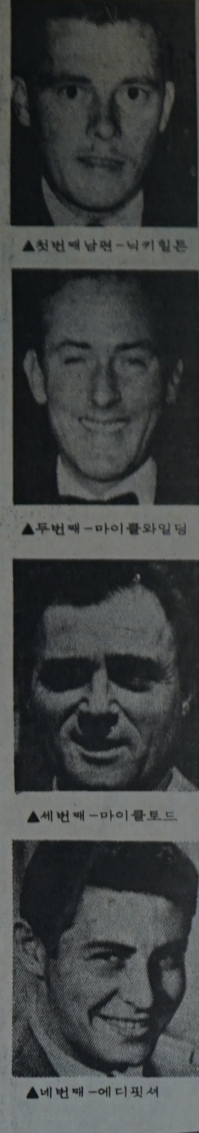
한가지 반가운 사실이 있다면 젊은 외국인관광객수의 증가인데 그러나 이들은 호텔보다는 야영장, 레스토랑보다는 캠핑 사이트를 찾고 있어 관광수입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

ENIT당국은 발길이 뜸해져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관광진흥책도 있어야 하지만 관광업에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는 작업관부하 확립해야 한다고

할리아도시는 도둑들의 소굴이라면서 최후에 기여 폭에 걸고 있는 지갑을 내보기도 했다.

한 관광업자는 지금까지 관광객유지경쟁에서 스페인

강조했다. 『내년에 이탈리아의 모든 호텔을 외국인 관광객들로 채우려면 이탈리아인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기본적 태도부터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일곱번째 男便은...

여섯번째 男便 워너議員과 別居선언한 리즈

엘리자베스·테일러가 남편 존·워너 연방상원의원과 5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별거생활에 들어갔다.

테일러의 대변인 벤·셴은 21일 테일러와 워너를 대신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부가 합법적인 별거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테일러의 대변인에게 물도 물도 요청했다. 전 해군장관이었던 54세의 워너는 버지니아주의 근대선거사상 가장 적은 표차이로 지난 1978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테일러는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았었다.

의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휴일을 함께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너는 테일러와 2번째 결혼을 했으며 테일러는 워너와 7번째의 결혼을 했었다. 테일러의 첫남편은 호텔 상속자 니키·윌슨이었고, 둘째 남편은 영국배우·가

워너와는 5년 結婚生活, "단순한 別居"라지만 거쳐간 男子는 모두 6명·버튼과는 두번식을 겪어 前남편 3명死亡·혼자살리라 믿는사람 없어

했다. 셴은 쌍방이 서로 원한을 품고 별거생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하고 현재 아무도 이혼할 의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두 부부는 지난 1976년 12월 4일 결혼했었다. 워싱턴 D.C의 워너 상원의원 보좌관들은 별거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을때마다

이름·와일딩, 셋째남편은 영화제작자 마이클·로드, 넷째남편은 가수 에디·피셔, 다섯째 남편은 영국배우 리처드·버튼(두번째 결혼), 그리고 6번째 남편은 방금 별거생활에 들어간 워너이다. 이류중 톰슨, 윌딩, 로드 등 세남편은 이미 사망했다.

희 소식!

신장개업

한인 운전사가 친절히 봉사
LULU 택시·관광
24시간 서비스

한인 경영 개스 스테이션
유니온 김 씨 서비스
싼값에 봉사

PREMIUM = 38.9
UNLEAD = 37.9

☎ 942-8722

1370 MAKALOA ST. (삼성백화점 주차장)

신장개업

목마차 식당·라운지

대구 명물 『따로국밥』을 비롯, 한식 일체

※ 낮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술과 낭만이 있는 칵테일 라운지로 이어 집니다.

대표 : 수·티나
☎ 531-1137

OPEN 10AM - 2AM

92 N. KING ST.